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복주슈, 부산의 철벽방패 뚫어라”

‘한국형 용병’ 슈바(오른쪽)의 합류로 날개를 단 광주 FC가 부산 원정길에 오른다.

주말 K리그 4R 광주 FC 부산원정

막강한 ‘화력쇼’로 무패 행진 도전

K리그의 ‘무서운 막내’ 광주 FC가 부산 원정에 나서 4경기 무패행진에 도전한다.

광주 FC가 24일 오후 3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2012 K리그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상주와의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광주는 포항전 무승부에 이어 3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2승1무(승점 7)로 전북과 공동 4위에 올라 있다.

광주는 부산을 상대로 4경기 무패행진을 노린다.

지난 시즌 양팀은 정규시즌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었다.

이번 대결은 막강 화력을 앞세운 광주와 든든한 수비진을 앞세운 부산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된다.

광주는 앞선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복주슈(복이·주앙파울로·슈바)트리오’와 김동섭·이승기를 더해 막강 화력쇼를 준비하고 있다.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여 상대 수비진을 흔들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30초,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2분만에 상대 골문을 갈랐다. 뒷심도 좋아졌다. 후반 40분 이후 3골을 넣으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다.

광주의 공격 5인방에 맞서는 부산은 중앙선 아래까지 내려앉아 펼치는 극강 수비를 자랑한다.

에델·김창수·김한윤 등 5명의 수비수가 상대 공격의 흐름을 끊으면 파그너·임상협이 매서운 돌파력으로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 공격에 비해 수비가 약한 광주에게는 어려운 상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3경기 성적은 광주가 2승1무를 기록하며 2무1패의 부산에 앞서고 있다.

앞선 경기에서 광주는 24번의 슈팅을 날려 1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다. 부산은 7번의 슈팅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6개의 유효슈팅을 남겼다. 광주의 파상공세와 부산의 집중력 있는 한방, 어느 팀이 먼저 상대 골문을 열지 주목된다.

올 시즌 두 번이나 베스트 11에 선정된 K리그 개고의 조커 주앙파울로의 한방도 눈길을 끈다. 주앙파울로는 지난 시즌 부산과의 대결에서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놓고 환상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부산에 일격을 가했었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초반에 반짝 잘한다고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팀 분위기가 좋은 만큼 매 경기를 결승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며 “첫 승에 목말라있는 부산이 수비적으로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완급조절과 함께 매서운 공격으로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구 ‘동신여고 천하’

회장기, 단체·개인 단식 복식 숲 휩쓸어

김지연 선수 3관왕

동신여고가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동신여고는 지난 21일 여수 진남 정구장에서 끝난 제 33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단체전에 이어 개인복식·개인단식 정상을 밟으며 전국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대회 단체전 5연패의 위업도 달성했다.

한국정구의 기대주 주장 김지연(3년)은 3관왕에 오르며 동신여고 금메달 행진의 주역이 됐다.

19일 열린 순천여고와의 단체전 결승에서 3-0 우승을 이끌었던 김지연은 백설(2년)과 호흡을 맞춘 개인복식에서는 마산제일고의 김지원·윤상아 조를 맞아 4-0 승리를 거뒀다.

개인 단식에서도 순천여고 정현경을 3-1로 제압하면서 금메달 3개를 가져갔다.

2010년 개인 단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김지연은 지난 대회 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며 개인전 2연패를 달성했다.

김태균 감독은 “김지연이 지난해 부상으로 전국체전에서도 못 뛰고 고생을 했었다.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부상에서 회복됐고,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며 “김기영 코치와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내달 23일 안방에서 열리는 장원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요정 김연아 ‘남자’ 변신

5월 아이스쇼에서 ‘남장’ 새 갈라 프로그램 선보여

김연아(21·고려대)가 올 5월 아이스쇼에서 ‘남장’을 하고 등장한다.

김연아는 22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1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2’를 통해 ‘올 오브 미(All of me)’와 ‘썸원 라이크 유(Someone like you)’에 맞춘 갈라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오브 미’는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재즈곡이고 ‘썸원 라이크 유’는 올해 그래미상 6개 부문을 휩쓴 아델의 노래다.

김연아는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의 도움으로 이들 곡을 재해석해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김연아는 특히 자신이 직접 선택한 ‘올 오브 미’ 리듬에 맞춰 재킷과 모자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 남장을 한 채 안무를 선보이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연아는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며 이번 아이스쇼를 준비하고 있다.

‘E1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2’는 5월 4일부터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 링크에서 열린다.

김연아가 9개월 만에 은반에서 팬들을 만나는 자리인 이번 쇼에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에반 라이사첵(미국)이 함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장 연아’ 기대하세요 22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김연아 선수가 ‘E1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2’에서 초연될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섬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5월 3일,17일 ₩365,000원~
5월11일,25일 ₩385,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 · 올레길 블루나래호 ₩12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60,000원~

해외여행
2일 대마도 크루즈 ₩239,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훼리(매주목) ₩650,000원~
4일 청 도 위동훼리(매주토) ₩33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훼리(매주목)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훼리(매주화) ₩460,000원~
5일 장가계 MU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4일 황산 MU ₩670,000원~